

“책을 공공재로... 문학출판 저변 튼튼하게”

송인서적 부도... 지역 출판계도 위기감
도서관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독서 인프라 확대·출판계 체질개선을



송인서적 부도로 출판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학출판의 저변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학생들. <광주일보 DB>

연초에 발생한 송인서적 부도로 출판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 생태계 붕괴를 막고 출판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는 송인서적은 국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적도매상이다. 2000여 개 출판사와 1200여 개의 서점과 거래하는 업체로, 출판사로부터 신규 도서는 물론 서적 및 학습도서를 공급받아 일반 서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이다. 송인서적 채권단이 파악한 부도 규모는 총 688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계는 지속된 업계 불황과 도매상의 출혈 경쟁이 송인서적의 부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출판업계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전산화되지 않은 판매시스템, 어음 결제 방식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송인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도가 났지만 당시의 정부가 긴급 지원으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대부분 출판사들은 자신의 도서를 서점에 공급하는 대신 송인서적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책을 주고 받은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다.

다행히 ‘문학들’, ‘시와 사람’ 등 지역의 대표 출판사는 송인서적과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출판사는 출판협동조합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이곳을 통해 도서를 유통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의 부도 여파와 수년간 이어진 출판계 불황으로 가뜰이나 열악한 지역 출판계가 울해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송광룡 ‘문학들’ 대표는 “수도권이나 부산 쪽에서는 송인과 거래하는 출판사가 많아 피해가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송인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5개월짜리 어음으로 끊는데 작년 가을 이후 최근까지 거래한 업체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송인의 부도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던 출판사 ‘시와 사람’은 이후 송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서적을 유통해오고 있다. 강경호 대표는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출판사는 대부분 몇 개의 도매상적상을 지정하고 교차로 거래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송인 부도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송인 사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문학인이 모세는 “다른 산업에 비해 출판계가 영세한데다 유통 시스템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소수의 대형 출판사 외에는 어음 결제라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적 도매상의 어음이 출판사를 통해 다시 관련 업체, 즉 용지를 제공하는 업체와 인쇄 및 제본업체까지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다.

출판인들은 차체에 서점의 재고 현황과 출판 유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판매정보시스템 확대와 공공성을 지닌 서적 도매업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어음 결제 방식을 점차 현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송인 부도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독서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 간 우리나라 성인 중 1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 비율은 65.3%에 불과했다. 20년에 비해 21.5%가 떨어진 역대 최저 수치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독서문화진흥운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송광룡 ‘문학들’ 대표 또한 “문화시민, 문화강국이라는 수사만 요란하지 독서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회적인 지원책은 별무효과”라면서 “근본적으로 정책 당국이 도서와 출판에 공공재로 인식해 문학출판의 저변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 구매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서관입비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서 구입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안은 지난 10여 년간 제기된 출판 활성화 방안이지만 다른 상품과 형평성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독서 인프라 확대와 출판생태계 상생을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출판계 체질 개선 논의에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판노동자들을 비롯해 소형출판사와 지역 서점은 물론 독자들의 참여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을 바꾸려 ‘게릴라들’이 온다

극단 ‘연병’ 내일~22일 공동예술극장 ‘게릴라 씨어터’ 공연

지역 젊은 극단 ‘연병’이 신작 ‘게릴라 씨어터’(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19~2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7시 광주 예술의거리 공동예술극장.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게릴라 씨어터’는 ‘크리스마스에 삼십만 원을 만날 확률’ 등을 쓴 오세혁 작가 작품으로 지난 2014년 서울연극제 ‘희곡아 솟아라’ 선정작이다.

작품의 배경은 인적 드문 정글 속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인 게릴라들. 이들에게 유일한 식량줄이었던 산지기는 정부군의 배라에 선동 당한다. 게릴라들은 산지기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대책 회의에

나서고 더 이상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자 그들은 진심을 전하고 설득하기 위해 연극을 준비한다.

여기에 때마침 정부군 수색대가 정글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극단 연병이 광주에서 펼치는 마지막 공연이다.

연출은 극단 대표 김용호씨가 맡았으며 유격대장 역의 심건우씨를 비롯해 정종태·백해경·박한울·박경준·박소진·이종화·심은정씨 등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8594-99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꿈나무들의 등용문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열린다

2월 23·24일 금호아트홀

선발되면 7~8월 데뷔 무대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스퀘어 문화관이 주최하는 제8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이 오는 2월 23일, 24일 이틀간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의 심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총 101명의 연주자를 선발해 온 ‘금호주니어콘서트’는 클래식 불모지인 이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클래식 꿈나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1회 출연자인 최현호 군이 베를린 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

는 남민 양도 올해 예원학교에 수석입학하는 등 ‘금호주니어콘서트’는 클래식 꿈나무들의 예비 무대로 더욱 주목받아 왔다.

또한 유·스퀘어 문화관은 ‘영아티스트 콘서트’(금호주니어콘서트 리마인드 연주회)를 개최, 신인 연주자들을 관객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등 본격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주니어 콘서트 출신 연주자들이 꾸준히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무대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에서 선발된 연주자들은 5개월 가량의 연습 기간을 가진 뒤 7~8월에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월21일까지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학·지역어·문학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19~20일 전남대 인문대 1호관

한국학 및 지역어·문학에 대한 세계 연구의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과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국어국문학과 교

수)는 19~20일 전남대 인문대 1호관 학술회의실 및 G&R 허브(Global and Research Hub)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학과 지역어·문학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 학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지역어와 문학에 대한 비

교 연구의 성과를 발표한다.

첫날인 1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가리미타 게이치 교수, 중국 산둥대의 김철 교수, 중국 연변대의 김일 교수, 태국 부라파대학의 순타리(Soontaree Larprungrueng) 교수, 충남대의 김진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20일에는 전남대 김대현·백현미·조재형 교수의 발표와 함께 전남대 BK21플러스 사업단이 어젠다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해외공동연구팀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사업단 박사과정 대학원생(신승, 진주, 염승환)의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전남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학과 지역어·문학 연구의 성과 및 세계적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교육·연구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버벨

Silver Bells

12월, 전국 극장 대개봉

철없는 아버지와 철든 아들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가 온다!

● 관람문의 | 광주 CBS (062-376-8500)